# 팩션사극 〈뿌리깊은 나무〉의 대중화 전략

신원선*

〈차 례〉

1. 머리말
2. 각색과정을 통한 서사구조의 재구성
  1) 실존인물과 소설 〈뿌리깊은 나무〉
  2)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
3. 문(文)과 무(武)의 판타지적 컨버전스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기존 역사드라마와 차별화된 대중성을 확보한 팩션사극 <뿌리깊은 나무>만의 대중화 전략을 분석해 내는데 있다.

이를 위해 팩션사극 <뿌리깊은 나무>의 대중화 전략을 각색 과정을 통한 서사구조의 재구성과 문(文)과 무(武)의 판타지적 컨버전스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팩션사극 <뿌리깊은 나무>는 드라마 장르에 적합하지 않은 원작소설의 서사구조를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델과 일치하는 구조로 재편함으로써 드라마적 대중성을 얻는데 성공한다. 또한 팩션사극 <뿌리깊은 나무>는 문(文)으로 대표되는 추리극과 무(武)로 대표되

*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는 무협액션극의 단순한 컨버전스에 머무르지 않고 판타지극으로 재차 컨버전스됨으로써 드라마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한다.

결론적으로 팩션사극 <뿌리깊은 나무>는 역사적 사실인 세종과 한글만을 남긴 채 대중화 전략을 위해 만들어진 허구적 인물들을 최종적으로 모두 죽게 함으로써 드라마상 허구(Fiction)를 '사실(Fact)'로 돌려놓는데 성공한다.

주제어: 소설 〈뿌리깊은 나무〉, 팩션사극 〈뿌리깊은 나무〉,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델, 컨버전스, 대중코드

## 1. 머리말

2000년대 이후 영화나 T·V 드라마에서 일고 있는 사극 열풍은 이전의 정통 사극과는 양상을 달리하며 역사를 대중적으로 소비케 하는 새로운 문화현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한 때 조선시대에만 국한되어 제작된 사극 드라마가 고구려, 백제, 발해, 고려 등 새로운 시대 배경을 통해 폭넓은 세계관의 지평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내용 자체도 궁중권력 암투에서 벗어나 소재가 다양화 되었으며 역사적 주인공이 아닌 역사 속의 비주류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한 사극들이 대중들의 주목을 받게 된다.

드라마 <대장금>(2003-2004)의 장금, 영화 <왕의 남자>(2005)의 공길, 드라마 <선덕여왕>(2009)의 미실, 드라마 <무사 백동수>(2011)의 백동수 등은 역사적으로 몇 줄 되지 않는 간략한 기록만 남아 있는 인물들을 주인공화한 대표적 사극들이다.

더 나아가 <추노>(2010) 같은 류의 사극은 역사상 소략한 기록조차 없는 작가의 창작에 의해 만들어진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한 사극이며, 화가 신윤복을 여자로 만든 <바람의 화원>(2008)이나 김

종서의 손자를 아들로 만든 <공주의 남자>(2011) 등은 드라마의 재미와 극적 몰입을 위해 의도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여 각색한 대표적인 사극의 사례들이다.

이밖에 <성균관 스캔들>(2010)이나 <해를 품은 달>(2012)의 경우는 시대적 배경만 차용했을 뿐 현대극과 변별점이 두드러지지 않은 감성적인 내용과 인물들을 통해 대중들의 역사적 판타지를 자극한다.

2000년 이후 등장한 이러한 류의 퓨전사극들은 풍부한 상상력을 통해 고증에 집착하기보다 역사 속 사건과 실존인물, 시대적 배경 등을 새롭게 해석하고 재구성해 대중들의 흥미를 유발시킨다.

이 논문은 퓨전식의 팩션사극 더 나아가 픽션에 가까운 사극들이 대중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를 대표적 퓨전 팩션[1]사극인 <뿌리깊은 나무>(2011)[2]의 대중화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팩션사극 <뿌리깊은 나무>는 원작소설이 지닌 미스터리 추리극을 토대로 무협극과 판타지극이라는 다양한 장르의 컨버전스를 시도함으로써 드라마적 대중성을 확보하는데 성공한다. 이 과정에서 대중성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는 삭제되고 역시 대중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은 새롭게 부연 첨가된다.

본고에서는 팩션사극 <뿌리깊은 나무>의 각색 과정에서 나타난 대중화 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원작소설 <뿌리깊은 나무>와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를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델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각색 과정을 통해 장르가 달라진 작품들을 그레마스의

---

1) 팩션(Faction: Fact+Fiction)이란 '사실(Fact)'과 '허구'를 결합한 신조어다. 다시 말해 사실에 근거했으되 허구인 이야기가 팩션이다.

2) <뿌리깊은 나무>는 김영현 · 박상연 극본, 장태유 · 신경수 연출로 SBS에서 2011.10.05~2011.12.22에 방영되었던 수목 드라마로 이정명이 2006년 7월에 발표한 동명의 역사추리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행위소 모델을 통해 분석을 시도한 이유는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델이 장르 변화를 겪은 작품들의 변화된 구조가 담아내고 있는 의미작용을 분석해 내는데 유용한 도식이기 때문이다.

이와 아울러 팩션사극 <뿌리깊은 나무>에 나타나는 문(文)과 무(武)의 판타지적 컨버전스 현상을 통해 퓨전 팩션사극의 대표적인 특성인 장르 혼종 양상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퓨전 팩션사극은 특정 장르로 묶을 수 없는 융합적인 작품세계를 보여줌으로써 어떤 특정 장르에 한정되지 않는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여러 방식의 드라마 분석 방법을 통해 기존 역사드라마와 변별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팩션사극 <뿌리깊은 나무>만의 대중화 전략을 분석해 내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 2. 각색과정을 통한 서사구조의 재구성

### 1) 실존인물과 소설 <뿌리깊은 나무>

팩션사극 <뿌리깊은 나무>는 이정명의 소설 <뿌리깊은 나무>와 등장인물들이 일부 같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인물의 설정이나 구도, 성격, 그리고 사건 등이 완전히 해체되고 재구성된 드라마이다. 덧붙여 이정명의 원작 소설 역시 세종과 한글창제에 대한 역사상 기록들을 작가의 시선으로 재구성한 작품이기 때문에 팩션사극 <뿌리깊은 나무>는 여타의 다른 오지지널 창작물을 원작으로 하는 각색드라마와도 변별되는 차별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팩션사극 <뿌리깊은 나무>를 '역사드라마' 라는 관점에서 원작인 소설과의 변별되는 차이점을 중심으로 각색 과정에

나타난 변이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드라마와 관련된 논의들은 역사적 사실성과 허구적 상상력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역사학자들은 역사드라마에서 역사적 사실의 왜곡과 변형을 지적하고 고증 문제의 잘못을 지적한다.[3] 반면 역사드라마 작가들은 드라마의 상상력이 역사적 사실에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한다.[4] 이러한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드라마는 그 장르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역사성과 허구성이라는 이중성을 지닌 팩션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들어 팩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역사드라마들이 역사의 숨겨진 행간에 대한 상상력이 아닌 기록된 역사 기록마저 뒤집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본장에서는 팩션사극인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의 구조분석에 앞서 한글 창제와 관련된 실제 역사상 기록과 소설 <뿌리깊은 나무> 속 실존인물과 사건들을 비교 검토해 보기로 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소설 <뿌리깊은 나무>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① 집현전 학사 장성수의 시체가 경복궁내 우물에서 발견되고 당일 숙직이던 겸사복 강채윤이 이 사건을 맡게 된다.

s② 잇달아 윤필이 주자소 화재 현장에서, 허담은 집현전에서 쇠몽둥이로 가격당한 채 발견되는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

s③ 장성수의 손에 남겨진 윤필의 옥단추, 장성수가 죽기 전날 금서를 태웠던 분서로에서 발견된 마방진, 윤필이 죽으면서 남겼던

---

3) 김갑동, 「드라마는 역사가 아니다」, 『뉴스메이커』415호, 2001년 3월 15일, 2001.
이덕일, 「픽션과 사실 사이 <여인천하>의 한 단면」, 『중앙일보』, 2001년 9월 25일, 2001.

4) 신봉승, 「역사와 역사극의 인식」, 『방송연구』봄호, 1984, pp.166-174.
이병훈, 「드라마 <허준> 제작일지」, 『드라마 <허준>을 다시 읽는다.』, 한국 방송비평회 프로그램 비평 토론집, 2000.

11자의 활자, 허담의 죽음과 명나라 사신관과의 관계, 이들의 몸에 새겨진 수상한 문신, 오행의 원리가 적용되는 죽음의 순서, 소이라는 여인, 무휼의 수상쩍은 행적 등 단서가 나올 때마다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든다.

s④ 3건의 연쇄 살인 사건이 해결되기도 전에 경회루 대들보에 『농사직설』을 지은 정초가 목매어 죽어 있고 그의 방에서는 지수귀문도라는 수수께끼 같은 그림이 발견된다.

s⑤ 강채윤은 격구시합을 통해 성삼문의 문신을 확인하고 그가 다섯 번째 희생자가 될 것을 직감한다. 강채윤은 아미산에서 산채로 매장당한 성삼문을 구해내고 그로부터 문신의 비밀과 작약 시계에 대해 듣게 된다.

s⑥ 백정 가리온은 집현전 학사 살인죄로 옥에 갇히게 되고, 그를 구하고자 강채윤이 정별감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심온 대감에 대한 세종의 마음과 중국과의 사대관계에 대한 비판을 담은 『고군통서』라는 서책에 얽힌 이야기를 듣게 된다.

s⑦ 강채윤은 『고군통서』의 행방을 알고 있다는 의문의 편지를 받고 아미산으로 향하다 독화살을 맞아 쓰러진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소이를 통해 모든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된다.

s⑧ 오행 위에 있는 음양, 이 두 사람의 비밀학사를 계속해서 찾던 강채윤은 그것이 세종과 소이를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상의 침소로 달려가 세종을 괴한으로부터 구하게 된다.

s⑨ 수사를 진행하면서 강채윤은 모든 사건이 『고군통서』라는 서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s⑩ 심종수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고군통서』를 이용하여 세종에게 위협을 가하고자 하지만 책은 이미 명나라 사신단에게 넘어가 버리고 만다. 하지만 마지막에 호위무사 무휼이 그 책의 저자가 자신이라고 밝히며 모든 것을 세종대신 뒤집어쓰면서 사건은 일단락된다.[5]

---

5) 이상의 장면별 줄거리는 소설 <뿌리깊은 나무>1, 2권의 내용을 필자가 요약 정리한 것임.

소설 <뿌리깊은 나무>에서 연쇄 살인 사건에 연루된 집현전의 학사들은 장성수, 윤필, 허담, 정초, 성삼문 등 모두 다섯 명이다. 이들 다섯 사람은 모두 작약 시계의 계원이며 집현전 학사이기도 하다. 훈민정음의 아, 설, 순, 치, 후의 5음을 상징하는 이들은 세종이 지은『고군통서』를 오행의 순환방식 대로 지켜오다 이중 성삼문을 제외한 4명이 오행의 방식에 의해 살해를 당한다.

소설 <뿌리깊은 나무>는 집현전 학사 장성수의 죽음과 그리고 그날 번을 섰던 어린 겸사복 강채윤이 사건의 수사를 맡게 되면서부터 시작된다. 한낱 분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고려사 편찬의 임무를 띠고 있었던 장성수의 죽음, 그리고 용의자로 지목받았던 윤필의 죽음, 윤필은 주자소에서 활자를 찍어내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향가 등의 우리 노래를 재정립하고 있었던 인물이다. 뒤이어 일어나는 지도의 제작과 편찬의 임무를 맡고 있던 허담과『농사직설』을 편찬해낸 정초까지 집현전 학사들의 의문의 죽음이 이어진다. 죽음의 방식은 다르지만 이들의 죽음은 음양오행이라는 공식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다면 소설 <뿌리깊은 나무>가 음양오행 사상과 살인사건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오행>
열상진원: 장성수=화(고려사 편찬/분서 담당/ 두 점 문신)
물에 빠져 죽음 - 수극화
주자소: 윤필=금(고려가요 수집/주자소활자 담당/네 점 문신)
불에 타 죽음 - 화극금
집현전: 허담=목(북진정책을 위한 지도제작/세 점 문신)
쇠몽둥이에 맞아죽음 - 금극목
경회루: 정초=토(농사에 관한 책/다섯 점 문신)
나무기둥에 목매달아 죽음 - 목극토
아미산: 성삼문=수(한글창제/한 점 문신-낙수에서 낙서가 나온 이치)
흙에 파묻혀 죽을 뻔함 - 토극수

<음양/태극>
강령전: 세종-괴한의 창에 맞아 위험에 처하지만 가리온의 수술로 생명을 건짐
소이-훈민정음 창제에 깊이 관여한 대전 나인[6]

소설 속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은 주자학의 이치를 누구보다 잘 알뿐 아니라 오행의 법칙을 신봉하는 인물이다. 그는 오행을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고군통서』를 옮겨 원본을 지키는 집현전 학자들 순서의 비밀을 알았을 뿐 아니라 그 순서에 맞는 죽음의 방법까지 선사한다. 그렇다면 소설 속 오행에 해당하는 다섯 명은 역사상 존재했던 실존인물인지 그리고 그들의 실제 죽음은 어떠하였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여러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소설 속 장성수와 윤필, 허담은 모두 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들이며 정초와 성삼문만이 문헌이 전하는 역사상 실존인물이다.

정초는 세종실록에 무려 223건이나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세종조에 활발히 활동했던 중요 인물이다. 그는 소설 속에서 소개된 대로 『농사직설』의 주요 편찬자임을 역사서는 전하고 있다.[7]

그러나 조선왕조실록 세종조의 기록은 그의 죽음을 그저 평범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8] 정초가 소설 속의 이야기처럼 농사에 관한 즉 토와 관련된 『농사직설』을 지었다는 이유로 나무 기둥에 목이 매달린 채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행에 해당하는 또 다른 인물 성삼문은 소설 속 연쇄 살인 사건에 연루된 다섯 명의 집현전 학사 중 유일하게 실제 훈민정음

---

6) 이상의 음양오행별 인물과 그들이 하는 일, 죽음과 연관된 사건 등은 소설 <뿌리깊은 나무>1,2권의 내용을 필자가 요약 정리한 것임.

7) 세종 44권, 11년(1429 기유 / 명 선덕(宣德) 4년) 5월 16일(신유) 2번째 기사,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3책 p.181.

8) 세종 64권, 16년(1434 갑인 / 명 선덕(宣德) 9년) 6월 2일(정미) 3번째 기사, 예문관 대제학 정초의 졸기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3책, p.569.

창제에 관여한 실존인물이다. 이중 세종실록이 전하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의 정인지 서문을 살펴보면[9]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인간을 복되게 할 새로운 글자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소설 속 성삼문은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하여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성삼문의 모습과 거의 유사하다.

소설에서 세종의 한글 창제와 반중화 사상에 반대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최만리 역시 조선왕조실록 세종조에 30번에 걸쳐 기록된 역사상 실존인물이다. 역사문헌에 전하는 최만리는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에 반대한 대표적인 학자로 소설 속 최만리는 역사서에 기록된 실존인물 최만리와 거의 흡사한 생각을 가진 인물로 묘사된다.[10]

이밖에 음양에 해당하는 인물로 한글 창제에 깊이 관여하는 벙어리 소이, 집현전의 연쇄 살인 사건을 조사하는 겸사복 강채윤, 해부학과 침술학의 대가인 반인 가리온 등은 소설 속에만 등장하는 허구의 인물들이다. 또한 소설 속에서 중요 사건을 일으키는 세종이 썼다는『고군통서』역시 작가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역사서이다.

연쇄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죽게 되는『농사직설』을 편찬한 역사상 실존 인물 정초의 죽음이 픽션으로 허구화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소설 <뿌리깊은 나무> 속에 남는 역사상 실존 인물과 실제 사건이라고는 1446년 세종 28년에 훈민정음 28자를 만들어 반포한 세종 그리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성삼문, 한글 창제와 반포를 반대한 최만리 정도뿐이다.

하지만 소설 <뿌리깊은 나무>의 실제 주인공은 세종이나 성삼문이 아닌 연쇄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겸사복 강채윤과 그와 대립

---

9) 세종 113권, 28년(1446 병인 / 명 정통(正統) 11년) 9월 29일(갑오) 4번째 기사

10) 세종 103권, 26년(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2월 20일(경자) 1번째 기사,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 등이 언문 제작의 부당함을 아뢰다 【태백산사고본】【영인본】4책, p.5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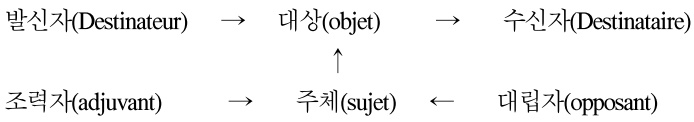
하고 있는 허구적 인물인 심종수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자 역시 시종 일관 소설에서 강채윤의 대립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살인 사건의 배후로 존재하다 마지막 후반부에 그 실체를 드러내는 대립자일 뿐이다. 따라서 소설 <뿌리깊은 나무>의 대립자는 세종의 한글 창제뿐만 아니라 실용학문에 대한 업적을 반대하고 있는 심종수로 대표되는 중화사상을 가진 모종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강채윤이 바라는 대상은 연쇄 살인 사건의 배후이며, 세종이 바라는 것은 반중화적인 실용학을 통한 애민이다. 그러나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소설 <뿌리깊은 나무>에는 이러한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발신자 역시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다. 발신자가 없기 때문에 발신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신자 역시 존재하지 않게 된다. 세종을 주체로 보아야 이야기가 성립하지만 세종을 주체로 보기에는 소설 속 세종은 단편적이고 삽화적인 묘사에 그치고 있으며 주인공 격인 강채윤이 바라는 대상에 대한 염원 역시 소설 <뿌리깊은 나무>의 주제를 구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드라마와 변별되는 소설만의 차이점을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델로 도식화시켜 봄으로써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가 구조의 재편성을 통해 취한 대중화 전략의 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의 텍스트를 통합체로 볼 때 두 가지 범주로 구분 될 수 있는데 하나는 사건의 주체들이고 다른 하나는 사건의 고리이다. 사건들의 고리는 먼저 사건의 주체들이 연출하는 의미 있는 역할들과 이런 행동들이 일어나는 순차로 되어있다. 러시아 민속학자 프로프(Propp)는 민화 형태론 「Morphology of the Folktale」(1927)에서 신화와 같이 설화의 원초적 형태를 지닌 민화를 일정하게 통합해 내는 중요한 요소는 이야기의 등장인물 자체가 아니고 등장인물의 기능(function) 즉 그들이 행하는 역할이라고 했다.[11] 그레마스

11) 전동렬, 『기호학』,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p.133.

(Greimas)는 기능적 관점에서 이야기에 보편적으로 6개의 배역이 나타난다고 보고 이것을 도식화 시켰다.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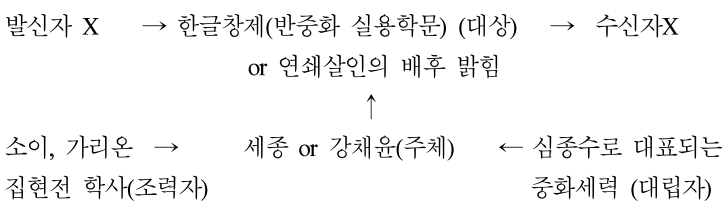
여기서 주체는 어떤 가치 있는 대상 또는 욕망의 대상을 찾아 나서는 주인공이다. 이런 의미에서 주체와 대상의 관계는 욕망의 관계로 정의된다. 탐색의 과정에는 도움을 주는 자와 방해자가 개입을 하게 마련이다. 그레마스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가 커뮤니케이션, 즉 전달의 축을 이룬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주체가 대상을 찾아 나서서 결국 이를 획득하는 과정과 발신자가 대상을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과정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주체 → 대상의 도식은 결국 대상이 주체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발신자 → 대상 → 수신자의 도식에 따르면 대상이 수신자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12] 가치체계에 입각해서 발신자는 주체를 탐색의 길로 인도하고 그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에 따를 때 수신자와 주체는 항상 일치하게 된다.[13] 주인공은 욕망의 대상과의 관계에서 주체로 정의되고, 발신자와의 관계에서 수신자가 되기 때문이다. 발신자는 수신자를 평가하고, 이 수신자는 주체로서 자

12) 그레마스, 김성도 역, 『의미에 관하여 - 기호학적 시론』, 인간사랑, 1997, p. 376.

13) 김태환,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델 수용의 문제점: 발신자 수신자 개념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화권연구』10, 서울대학교 독일학 연구소, 2001, pp. 114-115.

기가 원하는 대상에 일정한 가치를 부여한다.

이 논문은 발신자를 가치체계의 관리자로 보고 수신자와 주체가 일치한다는 관점에서 드라마의 콘텐츠가 되었던 원작소설 <뿌리깊은 나무>와 팩션사극 <뿌리깊은 나무>를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델을 중심으로 구조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델을 토대로 소설 <뿌리깊은 나무>의 구조를 도식화 시켜보면 행위소 모델과는 거리가 있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소설 <뿌리깊은 나무>의 행위소 모델]

위 구조를 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인공이 과연 누구냐는 것이다. 소설에서 주인공은 분명 겸사복 강채윤이지만 구조상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세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체의 분산은 대상의 분산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하나의 주체에게도 분산된 대상을 만들어낸다. 세종이 소설 마지막에 강채윤에게 남긴 두 서책에서 이러한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세종은 소이와 강채윤을 궁궐 밖으로 떠나보내면서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와 용례를 세세히 적은『훈민정음 해례』와『고군통서』등 각기 다른 종류의 두 종류의 서책을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14]

두 종류의 서책을 보관해 달라는 세종의 이러한 당부는 이 두

14) 이정명, <뿌리깊은 나무> 2권, 밀리언 하우스, 2007, p.275.

가지 모두가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소설에서 주체가 절대적으로 추구하고 지켜내야 대상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처럼 소설 <뿌리깊은 나무>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드라마가 될 수 있는 구조와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소설 <뿌리깊은 나무>는 구조의 전면적인 재구성을 통해 새로운 장르인 드라마로 재탄생하게 된다.

### 2)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

소설 <뿌리깊은 나무>는 가상의 반중화 사상을 담은 서적인 『고군통서』를 매개로 한글창제뿐만 아니라 세종의 실용학문에 대한 뛰어난 업적과 그를 반대한 중화사상을 가진 세력 간의 대립을 보여준다. 반면 팩션사극인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는 '밀본'[15]이라는 새로운 가상의 조직을 등장시켜 한글창제와 반포의 과정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 과정에서 소설 속 연쇄 살인 사건의 인물과 사건의 실마리 등이 모두 한글 창제와 연결되는 한 가지로 집중된다. 소설 원작과 달라진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의 기본 줄거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① 젊은 시절 세종 이도는 태종이 자신의 장인인 심온을 역모로 몰아 죽이려고 하자 심온에게 "도망가라"는 편지를 적어 보내게 된다. 그러나 이 편지가 태종에게 발각되어 오히려 심온이 역모에서 벗어날 수 없는 편지로 바뀌치기 되어 심온에게 전달된다.

---

15) 밀본은 역사상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드라마상 가상의 조직으로 조선 개국공신이었지만 이방원에게 처참한 죽임을 당한 정도전의 정치사상을 이어받은 비밀결사다. '뿌리' 조선초 비밀결사 밀본은 진짜 실존했나?, 2011.10.28 뉴스엔.

s② 이 과정에서 심온의 하인 똘복의 아비가 그 바뀐 편지 때문에 희생되며, 똘복과 친하게 지내던 소이의 아비도 살해된다.

s③ 똘복과 소이는 심온의 노비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우연히 탈출과정을 세종이 보게 된다. 세종은 어린 똘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태종과 대립하면서도 그를 구한다. 소이는 탈출과정에서 중전의 도움을 받아서 궁녀가 된다.

s④ 똘복 즉 강채윤은 자신의 아비를 죽인 자가 편지를 준 세종이라 생각하고 그를 죽일 결심을 한다. 그는 강한 무공을 배워 전쟁에 참전하여 여러 경험을 쌓은 후에 세종을 죽이러 궁으로 간다.

s⑤ 강채윤은 세종의 명으로 연쇄 살인사건의 수사를 맡게 되고 그 배후가 밀본이라는 것을 밝혀낸다.

s⑥ 밀본의 배후로 가리온이라는 백정이 의금부로 잡혀가고 강채윤은 불쌍한 자기 아버지가 생각나서 가리온의 무죄를 밝혀낸다.

s⑦ 풀려난 가리온은 우의정 이신적에게 자신이 숨은 밀본 3대 교주 정기준임을 밝히고 본격적으로 세종의 한글 창제와 반포를 방해한다.

s⑧ 서로 바뀌어 버린 정기준의 밀본 지서와 강채윤 아버지 유서의 진짜 주인을 되찾는 과정에서 강채윤은 소이와 재회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소이의 실어증이 낫게 된다.

s⑨ 세종은 강채윤과 소이를 궁 밖으로 보내주지만 소이는 한글 창제라는 자신의 대의를 위해 세종을 떠나지 않는다.

s⑩ 소이와 광평대군을 밀본으로부터 구해내는 과정에서 강채윤은 세종의 진심을 알게 되고 한글창제와 반포에 동참하게 된다.

s⑪ 정기준은 세종의 한글 반포를 막기 위해 급기야 광평대군까지 죽이고 훈민정음 해례의 내용을 유일하게 모두 알고 있는 인간 해례인 소이를 죽이려고 한다.

s⑫ 독화살을 팔에 맞은 소이는 마지막 순간에 훈민정음 해례를 써 강채윤에게 전하고 한글 반포식에 꼭 가져다 달라는 부탁 후 죽게 된다.

s⑬ 한글 반포를 막으려는 정기준은 한글 반포날 무사 개파이와 윤평 등을 내세워 세종을 죽이려고 하고 그에 맞서 싸우던 무사 무휼과 소이가 남긴 한글해례를 들고 반포식에 나타난 채윤 역

시 그들의 칼을 맞서 싸우다 죽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한글이 반포된다.16)

이상의 줄거리에서 살펴 본 대로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에는 소설 <뿌리깊은 나무>의 『고군통서』 부분과 한글 창제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 모두 삭제되어 있다.

또한 주체의 불분명함을 해소하기 위해 소설 속 주인공이었던 강채윤 대신 세종을 확실한 주인공이자 주체로 내세운다. 이 과정에서 연쇄 살인사건의 인물과 동기 또는 사건의 실마리 등이 모두 한글 창제와 연결되어 바뀐다. 따라서 소설과 드라마는 학사들의 죽음과 살해 순서, 그들이 남긴 힌트와 살해방법에서도 차이가 난다.

<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의 연쇄 살인 순서>

허담(첫 번째 희생자) - '군나미욕'이라는 글자가 적힌 수수께끼와 같은 두루마리와 '비바사론'이라는 책을 남긴다. 건익사공이라는 물방울로 사람을 질식사시키는 술법으로 물(水)과 관련되어 죽는다.

윤필(두 번째 희생자) - 윤평에게 주자소로 끌려가 화재로 죽고 '곤구망기'라는 사자전언을 남긴다. 불(火)과 관련되어 죽는다.(한자로 표시된 곤구망기 즉 'ㅣ 口 亡 己' 는 실제로는 한자가 아닌 한글로 조합하면 밀본을 뜻하는 글자이다.)

장성수(세 번째 희생자) - 성삼문이 원래 목표였으나 장성수가 대신 희생된다. 드라마에서 장성수는 '팔사팔어'를 연구하는 밀명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고, 그의 죽음은 경회루, 즉 나무(木)와 관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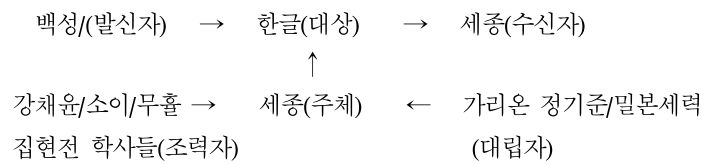
드라마상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강채윤이 북방에서 수사했다는 무인 고인설의 죽음 역시 '비바사론'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도 한

16) 이상의 장면별 드라마 줄거리는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 1회부터 24회까지의 내용을 필자가 요약 정리한 것임.

글과 창제되어 세종의 명을 수행하였음을 등장 인물간의 대화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소설에 등장했던 한글창제와 연관 없는 '농사직설'의 저자인 정초의 죽음이 삭제되었으며, 소설에서 지도제작을 담당했던 허담은 드라마 상에서 한글 창제와 연관된 불경인 '비바사론'이라는 책과 '군나미욕'이라는 자모의 순서를 남기고 죽게 된다. 소설에서 고려사 편찬과 분서담당을 담당한 장성수 역시 한글 창제를 위해 음서에 쓰여진 '팔사팔어'를 연구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그리고 소설과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 인물로 등장한 윤필 역시 '곤구망기'라는 소설과는 달라진 죽음의 단서를 남긴 채 죽게 된다.

이밖에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에는 원작에 없는 수많은 무사들이 등장한다. 원작에 등장하지 않는 대표적인 무사로는 이방지, 개파이, 윤평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심종수와 태평관측 여자 무사 견적희 역시 소설원작과는 달리 높은 무공의 소유자로 등장한다. 이중 원작에서 내시부 소속의 호위무사였던 무휼은 드라마에서는 내시가 아닌 조선제일검으로, 벙어리 궁녀 소이는 그녀가 한 번 본 것은 절대로 잊지 않고 재현해 낼 수 있다는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소유한 드라마적 인물로 새롭게 각색된다.

이상과 같은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의 등장인물들을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델로 도식화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의 행위소 모델]

위 행위소 모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의 구조는 소설 <뿌리깊은 나무>와 달리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델에 적합하게 완전히 재창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원작 소설의 주인공이었던 겸사복 강채윤 대신 소설 속에서 단편적인 모습만을 짐작할 수 있었던 세종이 드라마의 주체인 입체적인 인물로 재구성된다. 또한 대립자 역시 중화사상을 가진 세력에서 왕권중심주의 정치에 반대하는 밀본세력으로 바뀌며 그 수장인 가리원 정기준이 그 중심에 선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는 여러 밀본 세력인 도담댁, 한가, 심종수, 이신적, 무사 개파이와 윤평 등이 주체인 세종을 압박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 과정에서 소설 속 주인공이었던 강채윤은 세종의 대립자에서 다시 조력자로 자리를 옮기며 세종의 한글 창제 프로젝트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세종이 한글 창제에 대한 욕망을 갖게 된 것은 백성들의 무언의 발신 때문이다. 글을 몰라 억울하게 죽은 강채윤의 아버지, 역병에 관한 처방전 글을 몰라 죽어가는 백성들, 글을 몰라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이 세종에게 한글 창제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하는 발신의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한글이라는 기표에 부여된 기의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의 완성이고 보급이다. 이러한 기표와 기의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기호는 세종이 가진 애민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을 대변한다. 이상과 같이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는 소설 속의 분산된 주체와 대상을 세종과 한글이라는 하나의 주체와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드라마적 구조로 재편함으로써 대중적 성공을 거두는 초석을 만들게 된다.

## 3. 문(文)과 무(武)의 판타지적 컨버전스

팩션사극인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는 문(文)과 무(武)가 판타지적으로 컨버전스된 작품이다. 문(文)으로 대표되는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글 창제와 관련된 세종과 그 주변 인물의 얽히고설킨 미스테리한 추리극이 진행되며, 이러한 이야기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집현전 학자들의 죽음을 둘러싸고 쫓고 쫓기는 사람들의 무협액션극이다. 그러나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는 문(文)과 무(武)의 단순한 컨버전스에 머무르지 않고 판타지극으로 재차 컨버전스 됨으로써 드라마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전문적인 기술용어 차원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던 컨버전스라는 용어는 최근 들어 모든 종류의 복합적이고 혼성적인 사회현상을 지칭하는 대단히 포괄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17] 보통 컨버전스는 융합, 통합이라는 단어로 분석되는 말로 '크로스오버', '퓨전', '통섭', '경계 허물기'의 개념들과 섞여 쓰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적 현상 특히 문화콘텐츠에서 가장 쉽게 목격되고, 대중과 매체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끈다.

드라마와 같은 영상 매체에 앞서 문학에서는 이미 '뉴웨이브 문학'이라는 장르로 묶여지는 컨버전스 현상이 일어난 지 오래다. 이러한 컨버전스 문학들은 대중문학과 예술문학의 경계를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추리, 과학소설(SF), 스릴러, 호러, 팬터지, 미스터리 등 장르 문학의 대중적 장치들을 자유롭게 구사해 나가는 것이 특징이다.

드라마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컨버전스는 실제와 픽션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퓨전 드라마를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18]

---

17) 강남준 외, 『컨버전스와 다중미디어 이용』,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p. 21.

18) 김헌식, 「컨버전스 현상의 사회문화 심리학」, 『데일리안』 2009.11.26.(http://adimg.dailian.co.kr/news/검색일: 2012년 2월1일)

드라마상에 이와 같은 컨버전스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로는 우선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은 한 가지 재화를 사용하다보면 그 효용은 쓰임에 따라 체감하지만 여러 재화를 섞어서 쓰면 효용은 증가한다는 것이다.[19] 컨버전스 현상은 시너즈 효과와 밀접하다.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들을 상호 융합 시켜내면서 다른 가치와 재미를 만들어내 대중들을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컨버전스의 전제조건은 인식의 자유와 소통의 보장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것들과 차별화되는 창조성이 배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팩션사극 역시 대표적인 컨버전스의 한 양상으로 고증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형식을 통해 동시대인들과 소통하는 주제의식을 담아냄으로써 사극의 새로운 흐름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컨버전스 드라마의 일종인 퓨전 팩션사극은 단순한 장르 혼종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원용진과 주혜정은 텔레비전 장르가 장르 안과 밖에서 두 층위의 중첩적 공진화를 통해 상호관계 맺기를 시도하며 외적 조건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성을 획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것을 '중첩적 공진화(dual co-evolution)'라는 단어로 개념화 하였다.[20]

퓨전 팩션사극은 픽션과 팩션, 팩트 등의 경계뿐 아니라 모든 장르 관습을 넘나들며 끊임없이 당대 대중들의 사회적 요구와 새로운 감성을 담아내는 중첩적 공진화가 현재진행중인 컨버전스 드라마의 대표적 유형이다.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 역시 이러한 퓨전 팩션사극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드

---

19) 한국은행 경남본부, [퀴즈로 배우는 경제 상식 -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2011년 7월 5일, 경남도민일보 경제면.

20) 원용진 · 주혜정, 「텔레비전 장르의 중첩적 공진화(dual co-evolution): 사극 <허준>, <태조왕건>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16권 1호, 2002, pp.301-306.

라마 <뿌리깊은 나무>가 만들어내고 있는 중첩적 공진화 현상은 단순한 장르의 융합이 아닌 문(文)과 무(武)의 절묘한 융합이 이루어내는 현 시대를 사는 가장 소외된 이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로 공진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움직이는 사극 속 허구적 인물들은 비현실성이 가득한 판타지극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한다.

어떤 장르에 속하는 작품이건 그 작품은 시청자들에게 장르에 대한 고유한 기대(expectation)를 갖게 한다. 사극은 '역사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라는 기본 전제와 함께 그동안 쌓여온 장르의 관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시청자들의 기대에 부응한다. 그러나 시청자들의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요소는 이러한 관습적 부분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도되는 그 작품만의 특징에서 비롯된다. 캐슬린 J 터너(kathleen J, turner)와 레이먼드 스프래그(Raymond Sprague)는 이러한 특징을 관습과 창조 사이의 긴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21] 이는 관습화된 기대 요소와 새롭게 창조되는 기대 요소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시청자들의 만족도는 두 요소가 융합되는 과정에서 증폭된다.

소설 <뿌리깊은 나무>나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 모두에서 오롯이 남는 역사적 진실은 조선시대 세종이라는 임금이 한글이라는 우리 고유의 글자를 만들었고 반포하였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의 전제가 되는 관습적인 부분이다. 팩션이든 퓨전이든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가 사극이라는 사실은 시청자들에게 장르에 대한 고유한 기대를 갖게 하기 때문이다.

소설 <뿌리깊은 나무>가 한글의 익숙함이라는 관습적인 부분에 미스터리 추리라는 새롭게 창조되는 기대 요소를 가미하여 독자들

---

21) 유선혜, 「포스트모더니즘 시각으로 본 퓨전 사극 <추노>」,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영상미디어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0, pp.48-49 재인용.

의 만족도를 증가시켰다면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는 소설원작이 만들어낸 새로운 가치 위에 무협액션과 판타지 등 여러 대중적 장르를 융합하여 시청자들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킨다.

특히 원작 소설의 미스테리 추리극 형태의 드라마 도입은 시종일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며 극의 몰입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누군가가 죽고 그 누군가가 왜 죽어야 했는지를 추리하고 추적하는 미스테리 추리극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는 소설이나 극작품들이 취하고 있는 대표적 방식 중 하나이다.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 역시 이야기 전개의 일정부분을 감추고 감춘 부분에 대한 힌트조차 흐릿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한층 더 유발하는 기법으로 드라마 시청자들의 집중도를 높인다. 자신의 염원을 담은 일을 훼방하고 살인마저 서슴지 않은 암중의 적과 대적하고 있는 세종과 아직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적들의 기묘한 대결구도는 시청자들의 집중도를 높이며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궁금하게 하는 강력한 극적 추진력으로 작동한다.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는 어떤 사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ABCD 식의 선형식 구성이 아니라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 결과를 먼저 보여주는 DABC 식의 비선형 구성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비선형식 구성 방법은 처음부터 긴장감을 만들어내 우리의 관심을 끌면서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또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궁금하게 만든다.”[22]

예를 들면 “집현전 학사 암살 →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를 조사하고 → 사건은 타살로 밝혀지고 → 집현전 학사는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에 대한 의혹은 점차 증폭되고”와 같이 지속적인 시청

22) 린다 카우길, 이문원 옮김, 『시나리오 구조의 비밀』, 시공아트, 2003, pp. 187-188.

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이러한 비선형적 추리극의 형태는 드라마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작용한다. “추진력(forward)이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관객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23] 또한 추진력은 플롯에 클라이맥스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강력해져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관객으로 하여금 최후의 결과를 마음 졸이며 기다리게 만드는[24] 역할을 한다.

강채윤이 세종을 암살하려는 동기 역시 ABCD 구조로 풀어내지 않고 성인이 된 강채윤이 세종을 암살하는 상상을 먼저 보여준 후 그가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된 이유를 중간 중간 어린 시절 강채윤의 모습을 통해 DABC의 방식으로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조금씩 풀어주는 구성 방식을 취한다.

이처럼 시청자로 하여금 다음 단계가 궁금해지도록 호기심을 유발하는 미스테리 추리극 기법에 더해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는 화려한 무협액션 장면을 통해 소설이 아닌 영상 장르만의 시각적 효과를 배가시키는데 성공한다. 무협액션 장면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미스테리 추리극의 긴장감을 해체하며 중간 중간 시청자들에게 카타르시스적 감정을 분출하게 만듦으로써 추리극의 한계효용의 체감을 극소화하고 시청자들의 한계효용을 극대화한다.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에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무술 비기인 축상술 같은 무협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무예들이 등장한다. 정통 사극에 등장하는 전투장면 등은 스펙타클한 동적인 긴장감을 유발하는 대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싸움 전개를 보여주는데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는 주인공들의 개별적인 액션장면으로 무협영화에 비견되는 수준 높은 액션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데 성공한다.

---

23) 데이비드 보르, 김석만 옮김, 『통쾌한 희곡의 분석』, 연극과 인간, 2007, p.83.

24) 린다 카우길, 같은 책, p.211.

무사들의 얽히고설킨 관계 역시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재미를 느끼게 만들어 주는 요소이다. 세종의 편에 선 강채윤과 그와 대립하는 밀본의 호위무사 윤평의 스승은 모두 이방지이다. 물론 이방지는 어떤 이유에선지 윤평을 제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모두 축상술의 대가이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비등한 실력을 가진 무사라는 사실은 드라마의 마지막까지 긴장을 유발하는 강력한 장치로 작용한다.

강채윤 ← 이방지→ 윤평
(제자) (스승) (제자?)

세종의 호위 무사로 조선 제일검이라는 무휼 역시 과거 이방지에게 진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이후 무휼은 이방지를 극복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통해 조선 제일검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현재 무휼의 실력을 정확히 가늠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채윤이나 윤평보다는 앞서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방지가 등장하기 전까지 비슷한 실력으로 수평을 이루던 힘의 균형은 조선 제일검 이방지의 등장으로 깨지는 듯 보인다. 그러나 개파이의 등장으로 힘의 균형은 다시 수평을 유지하게 된다.

견적희: 원나라 복위세력 휘하에 돌궐족 용병부대가 있었다. 저 자가 바로 대적불가, 카르페이 테무칸이다. 인간 중에 저자를 대적할 사람은 결코 없다.[25]

드라마상에서는 돌궐족 용병부대원이 왜 밀본의 무사가 되었는지는 어떤 언급도 나오지 않지만 개파이 즉 대적 불가의 등장으로 세종측 무사와 밀본 무사의 대결이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는데 성공한다.

---

25) SBS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 23회 중에서, 2011년 12월 21일 방영.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는 채윤의 화려한 액션으로 시작해서 무휼, 윤평, 개파이, 이방지와 같은 무림 고수, 집현전 학사 출신 심종수와 태평관의 여무사 견적희 같은 의외의 인물마저 고난도의 무예를 보여줌으로써 한편의 무협극 그 자체로도 손색이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

짜이 레이(Jai Lei Lei)에 따르면 무협액션형 영화에서의 무술은 액션과 이야기의 흐름, 액션과 감정의 흐름, 그리고 액션과 인물성격의 상호융합을 추구함으로써 단순한 액션이 아닌 예술적 표현이 된다고 주장한다.[26]

이러한 측면은 사극의 무협액션장면의 미적표현과 연관되는데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는 화려한 무협액션 장면들을 통해 시청자들의 드라마에 대한 한계효용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묘사하거나 각 인물들 간의 감정의 흐름을 설명하는 내러티브적 요소로도 활용한다. 특히 강채윤, 무휼, 이방지, 윤평 등은 각자의 캐릭터에 따라 각기 다른 액션을 선보인다.

강채윤이 선보이는 액션은 그의 성격처럼 짧지만 강한 순간의 폭발력을 보여주며, 풍채만큼 큰 위엄을 자랑하는 세종의 호위무사 무휼은 무사로서의 정식교육을 철저하게 습득한 전형적인 무사로서의 액션을 보여준다. 강채윤의 스승이자 무휼에게 패배를 안겨준 이방지는 무협지의 고수가 연상될 만큼 가장 비현실적이면서 출상술의 원조답게 가장 화려하고 여유가 느껴지는 액션을 구사한다. 비밀 조직인 밀본의 무사 윤평은 직선보다는 곡선을 혹은 춤을 추는 듯한 액션을 통해 신비롭고 마성이 있는 그의 독특한 캐릭터를 구현해낸다.[27]

이처럼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에 무협액션 장면에 등장하는

---

26) Jai Lei Lei, 「중국무협액션영화의 국제화 진전」, 『동아시아 영화학자회의』 1, 2006, 6, pp.44-45.

27) 강채윤부터 무휼까지, <뿌리깊은 나무> 4인4색 액션스타일, 한지빈 감독 인터뷰 참고, Daily, 2011.10.26.

이방지로 대표되는 허구적 인물들은 비현실성이 가득한 판타지극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한다.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의 무협액션 장면은 그 자체가 하나의 무협액션극이면서 동시에 판타지극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이나 불가능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무사들, 별 어려움 없이 적들을 물리치는 최강고수의 여유로운 무예, 누구에게도 져 본적이 없는 강한 힘을 가진 무사의 등장은 일상에서 경험하기 힘든 불가능한 것에 대한 시청자들의 동경을 충족시켜주는데 기여한다.

드라마는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어떠한 소망이나 욕망을 상상의 세계를 통해 보여주며, 시청자들은 드라마를 통해 꿈과 판타지를 충족해 나감으로써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28]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는 시청자들에게 판타지 같은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탈현실과 일탈의 즐거움 및 일상생활의 활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판타지적 장면은 무(武)가 아닌 문(文)을 중심으로 한 한글창제 과정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 무(武)의 판타지성이 허구의 인물인 무사들을 중심으로 재현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문(文)의 판타지성 역시 세종을 도와 한글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허구적 인물인 궁녀 소이를 통해 발현된다. 그녀는 조선시대에 가장 하층민인 노비출신이자, 마음의 상처와 육체적 장애를 가진 벙어리며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 꿈을 이룬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여성이다. 가장 나약하고 힘없는 자를 대변하는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소이의 부족한 면들을 자신에게 투사하며 감정적 몰입을 경험한다. 이러한 감정적 몰입의 경험은 궁녀 소이가 그녀의 천재성을 발현하고, 말을 하게 되고, 한

28) 박신영,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자의 성향이 이용 동기, 장르 선호도 및 드라마 몰입 정도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 연구』 제10권 1호, 한국지역언론학회, 2010, p.168.

글 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인 모습에서 극대화된다.

한 번만 보면 모든 것을 기억하는 궁녀소이의 뛰어난 기억술은 드라마 시청자 게시판에 한글 해례용 USB설, 외장하드설이 돌만큼 판타지한 설정이다. 또한 밀본에게 납치당한 후 눈을 가린 상태에서도 자신이 탈출할 정확한 위치를 계산해 내는 그녀의 뛰어난 계산력과 판단력은 소이 네비게이션 설이 돌만큼 시청자들의 로망이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이라는 인물의 결정적인 판타지성은 세종이나 집현전 학사가 아닌 가장 빈천하고 힘없는 여성 소이가 현재 우리가 읽고 쓰는 한글 창제에 깊이 관여한 인간 훈민정음 해례라는 사실이다.

이렇듯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의 컨버전스 드라마로서의 특성은 분절적이거나 단절적이지 않고 미분적(未分的)이다. 무협액션극 자체에 판타지적 요소가 있으며, 추리극 속에 역시 판타지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는 최종적으로 다양한 장르의 컨버전스를 통해 드라마상 등장시켰던 허구적 인물인 밀본 정기준, 무사 강채윤, 이방지, 무휼, 윤평, 개파이, 그리고 벙어리 천재 궁녀 소이 등을 모두 죽게 함으로써 역사적 진실인 세종과 한글만을 남긴 채 드라마상 허구(Fiction)를 '사실(Fact)'로 돌려놓는다.

결국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가 최종적으로 지향했던 세종과 한글이라는 역사적 사실의 수렴은 드라마의 대중화 전략이 미시적인 부분에서 만들어낸 역사의 오도라는 비판을 극복해내며 거시적으로 우리 한글에 대한 긍정적인 역사인식을 갖게 하는 영향력을 발휘한다.

## 4. 맺음말

이 논문은 팩션사극인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의 대중화 전략

을 각색 과정을 통한 서사구조의 재구성과 문(文)과 무(武)의 판타지적 컨버전스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팩션사극 <뿌리깊은 나무>는 주체와 대상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드러나는 원작소설의 여러 구조적인 문제를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델과 일치하는 구조로 재편함으로써 드라마적 대중성을 얻는데 성공한다.

팩션사극 <뿌리깊은 나무>는 문(文)과 무(武)가 판타지적으로 컨버전스된 작품이다. 문(文)으로 대표되는 추리극과 무(武)로 대표되는 무협액션극은 단순한 문(文)과 무(武)의 컨버전스에 머무르지 않고 또 다른 장르인 판타지극으로 컨버전스된다. 드라마 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컨버전스 현상은 시너즈 효과와 관련이 있다.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들을 상호 융합시키면 서로 다른 가치와 재미를 만들어내 대중들을 만족시키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팩션사극 <뿌리깊은 나무>는 역사적 사실인 세종과 한글만을 남긴 채 구조의 재편과 다양한 장르의 컨버전스를 통해 열린 역사를 가능하게 만들어주었던 허구적 인물들을 최종적으로 모두 죽게 만듦으로써 드라마상 허구(Fiction)를 '사실(Fact)'로 돌려놓는다. 팩션사극에서 허구(Fiction)가 열린 역사텍스트를 통해 대중성을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면 사실(Fact)은 여전히 사극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팩션사극의 지향점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기본 자료>

김영현 · 박상연 극본, 장태유 · 신경수 연출, SBS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 http://tv.sbs.co.kr/root/(2011.10.05~2011.12.22 종영)

이정명, 『뿌리깊은 나무』, 밀리언하우스, 신판(2007), 1 · 2권.

'뿌리' 조선초 비밀결사 밀본은 진짜 실존했나?, 2011.10.28 뉴스엔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국역본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검색일: 2012년2월1일)

<단행본>

강남준 외,『컨버전스와 다중미디어 이용』,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그레마스, 김성도 역,『의미에 관하여 - 기호학적 시론』, 인간사랑, 1997.
데이비드 보르, 김석만 옮김,『통쾌한 희곡의 분석』, 연극과 인간, 2007.
린다 카우길, 이문원 옮김,『시나리오 구조의 비밀』, 시공아트, 2003.
전동렬,『기호학』,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논문 및 평론>

김갑동,「드라마는 역사가 아니다」,『뉴스메이커』415호, 2001년 3월 15일.
김태환,「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델 수용의 문제점: 발신자 수신자 개념을 중심으로」,『독일어문화권연구』10, 서울대학교 독일학 연구소, 2001, 104-118.
박신영,「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자의 성향이 이용 동기, 장르 선호도 및 드라마 몰입 정도에 미치는 영향」,『언론과학 연구』제 10권 1호, 한국지역언론학회, 2010.
신봉승,「역사와 역사극의 인식」,『방송연구』봄호, 1984, 166-174.
원용진 · 주혜정,「텔레비전 장르의 중첩적 공진화(dual co-evolution): 사극 <허준>, <태조왕건>을 중심으로」,『한국방송학보』통권 제 16-1호, 한국방송학회, 2002, 300-332.
이덕일,「픽션과 사실 사이 <여인천하>의 한 단면」,『중앙일보』, 2001년 9월 25일, 2001.
이병훈,「드라마 <허준> 제작일지」,『드라마 <허준>을 다시 읽는다.』, 한국 방송비평회 프로그램비평 토론집, 2000.
Jai Lei Lei,「중국무협액션영화의 국제화 진전」,『동아시아 영화학자 회의』1, 2006, 6, 1-72.

# Reading Popular Codes in the Faction Historical Dramas Deeply-rooted Trees

Sin, Won-Seon

This paper is to analyze popular code of the faction historical dramas *Deeply-rooted trees* in two respects, the structure of the actant model(Modele actantiel) of Greimas and As a convergence of pen and sword.

The novel *Deeply-rooted trees* was adapted for TV drama by completely reorganized the structure of the novel. Unlike novel, structure of drama *Deeply-rooted trees* was recreated as completely in accord with actant model(Modele actantiel) of Greimas.

Drama *Deeply-rooted trees* is a type of convergence works mixed with various genres of mystery, martial art, fantasy etc and fact and fiction. Convergence phenomenon of dramas is related to synergy effect.

The fusion of we are familiar with produce transvalue and interest. Then, it would be easier increase public satisfaction. Drama *Deeply-rooted trees* succeeds to amplify the synergy by reorganized the structure of the novel and Convergence of various genres.

Dramas *Deeply-rooted tre*es is made all fictional characters die. Because It's important to distinguish fact from fiction. In a faction of historical drama Supposing fiction is strategy has become popular, fact is directing point of historical drama.

Key words: Novel *Deeply-rooted trees,* faction historical drama *Deeply-rooted trees,* Convergence, actant model(Modele actantiel) of Greimas, popular code

신원선
소속: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주소: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521 마포 자이 APT 103동 903호
전화번호: 010-3233-9235
전자우편: sws412@hanmail.net

이 논문은 2012년 3월 10일 투고하여
2012년 4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4월 30일 간행함